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88)(8/20/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49 장 영생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약속된 지극히 큰 상을 바라봄, 7 절

삼상 17:45, 47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눅 12:28-30 -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딤후 6:18-19 -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7.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네 자신을 굽혀 순복하라. 이것을 누가 말하였고 저것을 누가 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어떤 일을 해 주기를 네게 바라거나 요구한 사람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이든, 그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듣고 전적으로 선의로 받아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그 일을 완수하려고 애쓰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구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칭찬을 받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오직 너는 이것도 저것도 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네 자신을 멸시하기를 기뻐하고, 오로지 나만을 즐거워하고 높이라. 네가 마땅히 원하여야 할 것은, 살든지 죽든지 네 안에서 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유익은 어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과도 연결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와 함께 나 자신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유익도 많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다. 행 18:9-10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늘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박해를 뚫고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괴력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도전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었다. 삼상 17:45, 47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적인 힘과 수단인 칼과 창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울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확실하게 책임지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신 7:21 -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눅 12:28-30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과 실천이 된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마 19:27-29 -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후원하며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 눅 12:33 -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딤후 6:18-19 -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일, 사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사랑을 베풀며 섬긴다. 이것은 그 사람과 그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돕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큰 은혜로 갚아 주신다. 분명히 기억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만복을 더하시며 돌보시고 챙기시며 갚으신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받을 영적 유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